

2023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중점들

메시지 13

시대를 전환하는 사람들인 주님의 이기는 이들이 되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음

성경: 마 1:21, 롬 10:12-13, 창 4:26, 행 2:21, 시 80:17-19, 116:1-2, 4, 12-13, 17

- I.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마 1:21.
 - A.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 구원자’ 혹은 ‘여호와와 구원’을 의미한다. 하나님(히브리어로 엘로힘이며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의미임)은 그분의 능력을 가리키며(창 1:1), 창조물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여호와와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다(창 2:4).
 - B.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이다(출 3:14). 예수는 여호와, 위대한 나, 즉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래에도 영원히 계실 분이다(계 1:4).
 - C. 주님의 이름이 ‘나는 이다’ (요 8:58) 이므로 주님은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그것이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써넣을 수 있는 서명된 백지 수표가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예시된다.
- II. 히브리어로 ‘부르다’는 ‘크게 부르다’, 즉 ‘외치다’를 의미한다. 헬라어로 ‘부르다’는 들을 수 있게 부르고 외치는 것을 의미한다. 헬라어로 ‘부르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람을 이름을 소리 내어 부르는 것이다.
 - A. 영적인 영역에서 입으로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 계수되는 것은 놀라운 원칙이다. 우리가 가정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주님을 부를 수 없다면,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담을 크게 소리 내어 말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한다.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어떤 때는 한적한 장소에 가셨고(막 1:35), 또 다른 때는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마 14:22-23, 눅 6:12). 우리는 비록 낮은 음성이라 할지라도 들릴 수 있는 음성으로 기도해야 한다.
 - B. “여호와께서 내 목소리와 내 간구를 들으시기에/나는 그분을 사랑한다네/그분께서 내게 귀 기울여 주시기에/나는 내 평생 그분을 부르리라”—시 116:1-2.
 - C.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아 2:14 하.
- III. 로마서 10 장 12 절과 13 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 A.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리는 비결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엡 3:8, 1:22-23, 3:19, 21.
 - B.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혜택에 / 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시 116:12-13, 비교 103:1-22.
 1. 아담 안에서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지만(계 14:10),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 그 잔을 마시셨다(요 18:11).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 안에서 구원의 잔이신 주님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잔은 신약의 모든 유산의 실재인 그리스도 자신이다(눅 22:20, 사 42:6).
 2. 이 잔은 ‘축복의 잔’이라 불리는데(고전 10:16), 이 잔 안에는 가장 큰 축복, 즉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과정을 거치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갈 3:14)이신 삼일 하나님 자신(민 6:22-27)이 있다.

3. 이 잔은 신성하고 넘치는 축복의 잔이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잔이다(찬송가 223 장). 우리가 우리의 은혜로운 주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실재인 그분의 모든 사랑을 나눌 때 항상 넘쳐남이 있다(영한 동변 찬송 595 장, 고전 2:9).

C.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듭남에서 시작하여 변화를 거쳐 영광스럽게 되어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유기적인 구원을 통해 ‘그리스도화’되는 과정 안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롬 5:10, 8:10, 6, 11, 고후 3:18, 5:4.

D.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 안에 있게 되어 하나님의 왕국의 실재 안에 있게 된다. 하나님의 왕국의 실재는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 주님의 통치권을 갖고 주님을 대표할 수 있다—고전 12:3 하, 롬 14:17, 창 1:26.

IV.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약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실행이 아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창세기 4 장 26 절에서 인류의 세 번째 세대인 에노스(‘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의미함)와 함께 시작되었다.

A.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욥(욥 12:4, 27:10), 아브라함(창 12:8, 13:4, 21:33), 이삭(창 26:25),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신 4:7) 삼손(삿 15:18, 16:28), 사무엘(삼상 12:18, 시 99:6, 105:1), 다윗(삼하 22:4, 7, 대상 16:8, 21:26, 시 14:4, 17:6, 18:3, 6, 31:17, 55:16, 86:5, 7, 116:1-2, 4, 13, 17, 118:5, 145:18), 시편 기자 아삽(80:17-19), 시편 기자 헤만(88:9), 엘리야(왕성 18:24), 이사야(사 12:4), 예레미야(렘 3:55, 57), 다른이들(시 99:6)에 의해 계속되었다. 이들은 모두 구약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실행한 이들이다.

B. 이사야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당부했다(사 55:6). 심지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신언자들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습관이 있음을 알았다(은 1:6, 왕하 5:11).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일으키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사 41:25, 비교 스 1:1-4).

C.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요(시 50:15, 렘 29:12) 갈망이다(시 91:15, 습 3:9, 숙 13:9). 그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천에서 마시는 기쁜 길이며(사 12:3-4),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누리는 길(욥 27:10), 즉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다.

D.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매일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시 88:9). 요엘은 신약의 희년과 관련하여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실행을 예언하였다(욘 2:32).

V. 신약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오순절 때에 베드로가 언급했다—행 2:21.

A.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가 그분께서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고전 1:2) 모든 것을 지니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누리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우리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주된 실행이다(롬 10:10-13).

B. 초기의 믿는 이들은 각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실행했다(고전 1:2). 믿지 않는 이들에게, 특히 박해하는 이들에게 그것은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을 가장 쉽게 가려 낼 수 있게 하는 표시가 되었다(행 9:14, 21).

C. 스테반은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의 이름을 소리 내어, 심지어 큰 소리로 불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스테반을 박해하는 이들 중 하나인 사울(행 7:58-60, 22:20-21)에게 잇을 수 없는 큰 인상을 주었다. 아직 믿지 않는 이었던 사울은 후에, 믿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소리 내어 부르는 것을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표시로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박해했다(행 9:14, 21).

D. 사울이 주님께 붙잡힌 후 즉시 사울을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인도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침례를 받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당부했다—행 22:14-16.

E. 디모데후서 2 장 22 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에 따르면, 초기에 주님을 추구하는 이들이 그렇게 주님을 부르기를 실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의심할 바 없이 바울은 그 자신이 주님을 부르는 것을 실행한 이었으므로 그의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그 자신처럼 주님을 부르기를 실행하여 주님을 누리라고 당부할 수 있었다.

VI. 주님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매혹되어,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신성하고 비밀하고 개인적이고 애정어리고 친밀한 로맨스를 유지할 수 있다. —“당신의 이름은 쏟은 관유 같아요. / 그러기에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답니다.”—아 1:3 하

- A. 그리스도의 매혹적인 이름, 즉 그분의 인격과 존재는 모든 것을 포함한 복합된 관유인데, 이 관유는 하나님과 사람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죽음의 효능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부활 능력이 복합되신 그 영을 상징한다—출 30:22-30, 빌 1:19.
- B. 우리의 영을 훈련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께 그분의 입의 입맞춤들로 우리에게 입맞추시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가장 개인적이고 애정어린 접촉을 갖는 것을 상징한다—딤후 2:22, 비교 고후 2:10.
- C.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이름의 인격이므로 반응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의 인격이신 모든 것을 포함한 복합되신 영을 얻는다. 한 새사람을 위해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취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불러야 한다.

VII.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영적 숨이신 그분을 영적으로 숨쉬는 것이고, 영적인 물이신 그분을 영적으로 마시는 것이다—고전 10: 3-4.

- A. 찬송가 210 장(영한 동번 255 장)의 1 절과 후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1. “주님 내게 성령 부어 마시게 가르치며 / 주의 품에 죄와 자아 쏟게 도와 주소서”
 - 2. “나의 슬픔 뿔어내고 죄악 내취고 / 나는 깊이 들이마셔 주의 풍성을”
- B. 찬송가 65 장(영한 동번 73 장) 2 절은 “축복의 주 능력의 구주 / 내 모든 필요 채워 / 주의 이름 호흡함이 / 참 생명 마심일세.”라고 말한다.
- C. 그 영은 숨이신 주님 자신이시고(요 20:22), 생수이시다(요 4:10, 14). 주님을 우리의 숨으로 쉬고 우리의 영적인 물로 마시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 1. “오, 여호와님! 저는 아주 깊은 구덩이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은 제 음성을 들으셨으니 제 호흡과 부르짖음에 귀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렘 3:55-56.
 - 2.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의 샘들에서 기뻐하며 물을 길는 것”이다—사 12:2-6, 영한 동번 찬송가 1340 장.
 - 3. 나아가 우리가 합당한 영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하거나 “주 예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위해 신성하고 비밀하고 유기적으로 같아지도록, 같은 영적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 같은 영적 물이신 한 영을 마신다(고전 12:3, 13, 10:4).

VIII. 이기는 이들은 그들의 증언하는 말로써 사내아이의 원칙 안에서 살고, 그들의 혼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자아를 부인한다—계 12:2, 5, 10-11.

- A. 그들은 그들의 증언하는 말로 사탄을 이긴다. 증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뜻한다. 증언하는 말은 반드시 말해 내야 하는 것이다.
 - 1.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영적인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사탄을 이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서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거나 “주 예수님”이라고 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사탄과 죽음과 죄를 이기신 그분의 승리를 보여주실 수 있다.
 - 2.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사탄에게도 반드시 선포해야 할 영적 사실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주님이신 것과 주님께서서 승리하신 것과 사탄이 주님의 발 아래 박살난 것을 사탄과 그의 귀신들에게 반드시 선포해야 한다—엡 1:21, 빌 2:9-11, 요 14:30 하, 롬 16:20.
- B.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자아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그들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사탄을 이긴다.
 - 1.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탄이 자신을 사람의 혼 생명, 즉 사람의 자아와 결합시켰다. 사탄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며 부인해야 한다—마 16:23-24, 눅 14:26, 9:23-24.
 - 2.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변형산의 이상, 즉 왕국의 출현 안에서 한 새사람을 이끌어오기 위해 우리의 전체적이고 모든 것을 포함한 대치물이 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과 놀라운 부활을 지닌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막 8:27—9:13.

3. 주님과 그분의 세 제자들이 변형산에서 내려온 직후에 어느 아버지는, 고통받는 자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구했지만 그들이 쫓아 내지 못했다고 했다. 주님께서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막 9:29.
4.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을 뜻한다. 기도는 참된 자아 부인이다. 기도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치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우리의 자아를 부인해야 함을 보여준다—갈 2:20.
5. 실지로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기 위해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다만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짧은 기도도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한 짧은 기도는 우리가 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노력을 들이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그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들 적용하였는데,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치물이시라는 이상을 실행한 것이다.

IX. 다니엘과 같이 시대를 전환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다니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 기도에 의존하였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에 의존하였다.

- A. 다니엘이 포로 되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수행하시기를 구했을 때 그의 기도는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하였다—“주님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황폐해진 주님의 성소 위에 비추어 주십시오”(단 9:17). ‘주님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은 다니엘의 기도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하고 자신을 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B. 다니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필사적으로 기도함으로써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외쳤다—“오, 주님, 들어주십시오! 오, 주님, 들으시고 행동하여 주십시오! 오, 저의 하나님,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는 주님의 성과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단 9:19.
- C. 다니엘이 받은 이상의 내용은 칠십 이레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거룩한 성에 대해 정하신 운명이다—단 9:24-27.
- D.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한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으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함을 보여 준다—“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감추어진 일들을 알려 주겠다.”—렘 33:3, 비교 고전 2:9-10, 엡 3:18 하, 찬송가 135 장(영한 동번 163 장)